



다솜 사랑

Volume 5, Number 3

2009년 3월 14일

다솜 사랑
Vol. 5, No. 3 (제21호)
펴낸이: 교장 최미영
역은이: 교사 임강주

학교장 인사말씀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5년 전에 다솜이 처음 개교한 때를 생각해 봅니다. 밀피타스로 이사와서 선생님들과 함께 새 건물에서 학교를 시작하는 꿈에 부풀어서 열심히 시작했던 때입니다. 5년이 지나면서 30여명이던 학생이 50명이 되고 마침내는 100명이 넘어가며 학교가 계속 자라기만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웅변대회, 동화구연대회, 백일장대회에서 큰 상을 받아왔고 선생님들께서도 각종 교사 연수회에 참여하여 열심히 배우며 정성을 다해 가르쳐 왔습니다. 2007년 가을학기부터는 반 이름도 한국의 역대 왕국의 이름을 넣어서 고조선 반부터 대한민국 반까지로 이름을 고쳐서 학생들이 반 이름을 통하여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세계적인 경제문제로 학생이 많이 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솜은 계속 자라고 있고 앞으로도 자라날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선생님들의 사랑, 그리고 지역사회 어른들의 사랑으로 우리 학생들은 무럭 무럭 자라날 것입니다. 친절, 정직 그리고 질서가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속담에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외로운 섬이 되게

버려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학부모님과 교회와 한인 사회가 모두 힘을 합하여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재미한인으로 자라나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다솜과 우리 학생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 면에서 많은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14일
다솜한국학교 교장 최미영

목 차

학교장 인사말씀	1
다솜개교축사.....	2
우리들의 이야기	3
다솜학생들의 앙케이트 조사	5
다솜학교 학부모 앙케이트 조사	6
다솜연혁	8
다솜소식	12



3-5월 다솜 학사 일경 및 행사

- 3월 14일 : 개교 5주년 기념식
- 3월 21일 : SAT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 3월 21일 : 북가주 교사 연수회
- 4월 11일 : 부활절 휴강
- 4월 18일 : 한국어 능력시험
- 5월 9일 :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다솜 개교 5주년을 축하하며...

배상호 목사

다솜한국학교의 개교 5주년을 축하합니다.

지난 5년간 여러 가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인 2세들의 뿌리 교육을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하며 섬겨오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유대인을 꼽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 미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등의 전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민족임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특별한 교육에 있다고 하여서 어디에서나 유대인의 자녀 교육 방법을 배우고, 또한 흉내를 내곤 합니다.

유대인들의 성공의 비결은 쉼 없이 교육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성경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 특별히 종교적 유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것을 배우고 익혀서 삶에 배이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교육의 최우선 과제이고, 이러한 것이 어려부터 그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분의 말씀을 배우며 실천하는 삶이 몸에 배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주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전 세계를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영역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인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도 유대인 못지않은 열정과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미국에 살고 있지만 자신의 뿌리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도 미국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솜한국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자랑스럽고 소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인 사회를 깨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도자로 양성해 가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학교로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서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리빙워드 한인교회

배상호 목사



내 자신의 무식을 아는 것은 지식에로의 첫걸음이다.

George Gordon Byron (1788-1824)





우리들의 이야기

내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

김민하 (발해반)

나는 엄마하고 한국말을 잘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재원에게 가르쳐 주지요. 재원은 내 남동생이에요. 엄마는 내가 한국말을 하면 귀엽다고 했어요. 나는 영어와 한국어를 해요. 아빠와는 영어를 엄마와는 한국어를 해요.

김민희 (발해반)

내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잘하고 싶어서 공부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어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사무엘 (발해반)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한국은 나의 조국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을 배워요. 나는 커서 선교를 갈 거예요. 가서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커서도 한국말을 잘하면 좋겠어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국을 전하고 싶어요. 나는 한국이 좋아요. 화이팅 한국!

신세경 (발해반)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한국에 가고 싶어서입니다. 한국에는 할아버지와 삼촌과 고모가 살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만나고 싶어요. 열심히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잘할 것입니다.

원윤지 (발해반)

저는 한국말을 잘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열심히 한국말을 배워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한국말을 잘하고 싶어요. 재미있는 한국 동화책도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서영 (발해반)

내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한국에 가면 이모, 고모, 삼촌이랑 영어로만 말을 하지 않겠지요? 다른 한국분들께도 영어로 말하면 이해를 못 할거예요. 영어만 하면 한국에 가서 대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이수현 (발해반)

내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한국 친척들과 이야기를 잘하고 싶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을 가르쳐 주고 싶다.

이관희 (발해반)

내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역사도 배워서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가 보고 싶은 곳

노현우 (백제반)

나는 일본에 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 많지만 좋아요. 한번 일본에 가 보세요.

송푸른 (백제반)

나는 베이징에 가 보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오리고기가 만들어진 곳에 가서 먹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만리장성에도 올라 가고 싶어요. 테라코타도 보고 싶어요. 올림픽 경기장도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영장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양희선 (백제반)

나는 하와이에 가 보고 싶어요. 나는 하와이에 한 살 때에 처음 가 보았어요. 하와이는 바다가 아름다워요. 하와이 바닷가에서 모래성도 만들고 물놀이도 하고 싶어요. 하와이는 멀리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해요.

유리미나미 (백제반)

나는 하와이에 가 보고 싶어요. 하와이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하와이 칠리를 먹고 싶고, 파파야도 먹고 싶어요. 또 훌라 춤도 배우고 싶어요. 바다에서 고래도 보고 싶어요.

원수빈 (백제반)

나는 서울에 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한번도 못 갔어요. 내 아빠는 서울에 가서 재미있었어요. 내 가족과 같이 서울에 가고 싶어요. 서울에 많이 가고 싶어요.

윤하나 (백제반)

나는 뉴질랜드에 가 보고 싶어요. 나는 뉴질랜드에 가서 사촌 언니들과 놀고 싶어요. 나는 크라이스트처치 파크에 가고 싶어요. 나는 퀸스타운을 보고 싶어요. 나는 수영장에 가고 싶어요. 나는 마오리 족들의 민속춤을 보고 싶어요.

임종현 (백제반)

나는 Soda Springs에 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눈싸움하고 놀고 눈썰매도 타고 싶어요. 그리고 날씨가 시원해요. Soda Springs에 와 보세요.

장시은 (백제반)

나는 한국에 가 보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 고향이 있어요. 한국에는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 다니고 싶어요. 한국산에도 가 보고 싶어요. 한국 바다에 가고 싶어요.



할머니

홍희연(고려반)

6년 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식구들을 보러 놀러오셨습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 할머니께 매일 화를 냈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제 마음을 이해하시고, 혼내시기보다 저를 봐 주셨어요. 할머니는 제게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었어요. 그치만 저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친구들 하고 놀고 싶어서 가끔 도망가기도 했어요. 할머니가 다시 한국에 가시려고 할 때, 제게 용돈도 많이 주셨어요. 엄마는 다시 할머니께 드리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갖고 싶다고 우겼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그냥 제게 가지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많이 커서, 할머니께 나쁘게 했던 것들을 후회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놀러갈 때 할머니 걸으시는 것도 도와드려요. 할머니, 무지무지 사랑해요!!

원혁(고려반)

나는 할머니를 좋아해요. 우리 할머니는 착하고 친절해요. 할머니는 만날 때마다 나를 안아주세요. 할머니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할머니가 만드신 음식은 정말 다 맛있어요. 나는 할머니를 사랑해요. 나는 농구를 잘하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나는 손자,

손녀들과 다 재밌게 놀아주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나는 젊고, 재밌고, 멋있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최윤아(고려반)

우리 할머니는 한국에 사세요. 한국에 사셔도 전화를 자주 하셔서 어떤지 물어 보세요. 할머니는 여름방학동안 우리 집에 오실거예요. 가족과 같이 California 를 돌아다닐거예요. San Francisco 에 가서 덤섬을 먹고 등산을 할 거예요. Monterey 에 가서 해물도 많이 먹고 물개를 볼거예요. 다른 곳에도 많이 가고 재미있게 놀 거예요. 많이 놀지는 않아도 할머니와 같이 있는게 좋아요. 할머니, 사랑해요!

조민기(고려반)

우리 할머니는 요리를 잘 하세요. 그리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놀아 주세요. 그러므로 할머니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거의 다 해주셔요.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착한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여행을 많이 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고조선반 학생들을 열심히 공부해요





다솜 학생들 앙케이트 조사

😊 한글학교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 색종이 접는 시간이 재미있어요(정인하)
- 가, 나, 다, 라 ...글자 공부가 재미있어요(노다익)
- 공부가 재미있어요(이준희)
- 물건 발표하는 시간이 재미있어요(진주와 공주)
- 친구들과 놀이하는 시간이 재미있어요(김규민)
- 선물 받는 시간이 재미있어요(서준호)
- 가,나,다 공부가 재미있어요(이기원)
- 글자공부가 재미있어요(유지)
- 색종이 접는 시간이 재미있어요(최지현)
- Dixon Landing Park에서 운동회 했던 일 (이세원)
- 설날 세배하고 세뱃돈 받은 일 (남석)
- 웃놀이하고 세배했던 일(김유나)
- 백일장대회(고려반)
- 쉬는 시간 (고려반)
- 골든벨 (고려반)
- 웃놀이-많이 이겼었어요 (고려반)

😊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국말은?

- 기원아! / 엄마! / 아빠!(이세원)
- 엄마 나는 배고파(이세원)
- 밥 주세요(남석)
- 언니! / 밥 먹어 /배고파(김유나)

😊 나의 꿈은?

- 화가 (이세원)
- 기계공학자 (남석)
- 수의사 (김유나)
- 과학자 /변호사 /요리사 (고려반)

😊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것은?

- 갈비 (이세원)
- 떡국 (남석)
- 김밥(김유나)

😊 선생님이 좋은 이유?

- 과자를 주는 게 좋아요(이세원)
- 나도 과자 주는 게 좋아요(남석)
- 재미있어서 좋아요 (김유나)
- 그냥 다 좋아요 (고려반)
- 스티커를 주셔서 좋아요(고려반)

😊 한국에 가면 뭐 하고 싶어요?

- 한국에서도 나는 여전히 그림 그리고 싶어요(이세원)
- 라면 먹고 낙시하고 싶어요(남석)
- 맛있는 것 먹고, 겨울에 눈 보고 싶어요(김유나)
- 제주도 가고 싶어요(김유나)

😊 한국말을 잘해서 좋았던 적은?

- 배우는게 재미있어요(고려반)
- 잘 모르겠어요(고려반)
- 네, 있었어요 (고려반)

😊 한국말을 잘하게 되면 하고 싶은 것은?

- 한국에 가서 한국음식을 먹고 싶어요(이세원)
- 한국인 친구들과 한국말로 얘기하고 싶어요(남석)
- 한글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김유나)

😊 여름방학 때 하고 싶은 일은?

- 어디 가든지 카툰 그림 그리고 싶어요(이세원)
- 하와이 가고 싶어요(남석)
- 한국, 캐나다 여행가고 싶어요(김유나)



다솜한국학교 학부모 앙케이트 조사

다솜한국학교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아는 분의 소개로
- 아는 친구가 강력히 추천해서
- 집에서 제일 가깝고 잘 가르치신다는 말을 듣고서
- 친구가 소개했습니다.
- 교장선생님의 소개로 다솜한국학교를 알게 되었고 다솜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생님들의 모습과 인상이 너무 좋아 다솜에 아이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 리빙워드한인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 개교시 다솜에 다니기 시작하던 친구의 권유로 알게 되었습니다.
- 집 근처의 한국학교를 찾던 중 다솜 한국학교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 친구를 통해서 선생님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입니다.
- 교회를 통해서이지만 무엇보다도 교장선생님에 대한 신임이 커서입니다.

다솜에 자녀를 보내면서 감명 깊었거나 인상적인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정체성의 확립과 가족간의 유대감을 강화시켜주는 듯합니다.
- 다솜한국학교는 어린 친구들에게 기회를 많이 고르게 주는 학교로 인상이 남는다. 전에 아이들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가지고 와서 애국가를 합주하고 어린 친구들과 노래를 했던 것도 그렇고 한국말이 서툴지만 언니 오빠들이 돌아가며 대표로 나와 기도로 조회를 시작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종업식과 입학식도 매우 성의있게 진행되어 인상 깊었다.
- 조회가 있는 것이 인상적이고 역사 공부를 하는 것과 설날 행사 등 재미있는 행사가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 딸이 소고춤을 배워서 개교기념일에 발표를 할 때 기뻐했습니다.
- 자녀들이 한국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알게 되는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저도 안해 본 한국무용을 배워서 발표하던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 설날 학교 행사와 고조선반 선생님이 떡국 만들기 등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이 계셔서 좋습니다.
- 미소의 담임 선생님이나 특별활동 선생님들이 너무나 훌륭하셨다는 점입니다.
- 주 6일동안 학교에 가야 한다며 투정을 부리던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마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한글 읽기며 쓰기를 보며 아~그래도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솜한국학교에 자녀를 보내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 같은 한국학생들과 모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우 관계를 형성하고 한국적 정서와 예절과 언어 문화를 배워 아이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며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 선생님들 개인 개인 모두가 실력이 있으시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살피 주시므로 신뢰가 간다.
- 가족같은 분위기와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좋습니다.
- 선생님들이 두 딸에게 매우 친절하셔서 좋습니다.
- 아이들이 다솜에 다니게 된 지 한 달도 안 된 새내기들이라 앞으로 함께 나눌 좋은 경험과 추억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수업을 받은 첫 날부터 두 아이가 다 학교가 너무 재미있어서 다음 주 토요일이 기다려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역시 다솜에 보내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6살 된 딸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동시를 재미있는 듯 여러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무척 기뻐했습니다. 한국학교 경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미국에서 살지만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읽고, 쓰고, 말하고 그리고 여러 특별 활동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 선생님들께서 매우 성의있게 가르치시고 마음이 따뜻하십니다. 학교 환경이 깨끗하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 모든 선생님들이 반듯하시고, 열정이 있다는 점이죠.
-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 다솜한국학교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 지금처럼 아이들에 대한 열정적인 마인드를 잘 유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의 교육에 만족하며 특별히 송향화 선생님의 사랑 가득한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오래 계셔 주세요.
- 아이가 한국학교에 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올해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내년에도 우리 딸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예뻐해 주시고 한글학교를 좋아하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의 열성과 교육 방침이 마음에 듭니다. 단순히 한글 교육 뿐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긍지,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다솜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미국의 이민자로서 이민 역사도 배웠으면 합니다.
-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걸 볼 때마다 늘 열심히 준비하시고 학생들 하나하나에 신경써 주시는게 느껴져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고학년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나 광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 저희 아이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다솜 한국학교 개교 5주년을 맞이하여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 .미국 땅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자녀를 양육하면서 문화와 언어의 거리는 어떤 부모도 동감할 만 합니다. 이런 여건속에서 다솜한국학교의 존재는 참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체제적으로 힘써주시는데 늘 감사드립니다. 지난 “요코이야기” 퇴출 운동의 성과를 보고 매우 감격했는데 앞으로는 다솜한국학교의 이런 애국적 활동과 교육 방침들이 더욱 빛을 발하기를 기원하며 “한국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뿌리깊게 내리는 발전하는 장소이기를 원합니다.
-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외국에서의 한국교육이라는 열악한 환경 아래 매우 힘들시겠지만 아이들의 한국인으로서의 교육, 잘 부탁드립니다. 다솜한국학교,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님들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저희도 한인 부모로서 분발하겠습니다.
- 개교 5주년을 함께 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이들에게 언어, 문화교육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과 잘못하더라도 창피해 하지 않고 계속 말해야 된다는 것을 자주 일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글을 잘 읽으로써 더 훌륭하게 살고 있는 젊은이와 만날 수 있다면 큰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다솜 연혁 (2004년 2월 ~ 2009년 3월)

2004년

2월	최미영, 박은경, 김의진, 박주희, 방은주, 이은주, 이현정, 장혜경, 최국희 교사가 주축이 되어 리빙위드 크리스천 센터가 위치한 1494 California Circle, Milpitas, CA에서 학교를 시작하기로 함.
2월 21일	교사회의에서 41개의 학교 이름 중에서 누리, 다솜, 옥수수, 꿈나무 등의 예선을 거쳐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다솜'을 학교명으로 제정함. (제안자: 박은경 선생님)
2월 25일	북가주 한국학교 협의회에 등록함.
3월 13일	40명의 학생이 5개 반으로 봄학기를 시작함으로써 개교함. (첫 강의는 교실의 미비로 인해 교회 앞에 위치한 레지던스 인 (Residence Inn) 호텔에서 시작함.)
3월 19일	학교 로고의 제정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학교의 모습을 표현하는 현 로고를 제정함.)
3월 27일	제26차 북가주 한국학교 협의회 연수회에 모든 선생님들 참석.
4월 2일	박근홍 이사장 추대.
4월 17일	제8회 구연 동화대회에서 박지연 학생 은상 수상
4월 24일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5월 8일:	제11회 북가주 백일장 대회 및 그림그리기 대회에 참가하여 많은 상을 수상 함.
5월 22일	학력 평가 시험 실시 (우수 학생: 옥수수반: 최유진, 정하경, 개나리반: 최유나, 정하은, 민들레반: 안지연, 이수황, 무궁화반: 이준용)
6월 5일	첫 학기를 골든벨 대회로 종강함. (골든벨 장원: 김병석, 골든벨 2위: 김현지, 골든벨 인기상: 이수황)
6월 12일	제8기 북가주 교사 집중 연수에 7명의 교사 참가.
6월 19일	다솜 한국학교 기금 모금 골프대회 개최.
7월 22일-24일	NAKS 총회 및 학술대회 참가. (참가 교사: 최미영, 이은주, 방은주)
8월 16일-22일	교육인적자원부 초청 한국학교 연합회 임원 초청 연수회에 최미영 교장 참석.
8월 28일	교내 교사 연수회 실시.
9월 11일	가을 학기 개강.
10월 2일	공식 개교식으로 정상기 총영사, 문묘순 교육원장, 장동구 북가주 한국학교 협의회 회장 및 임원 본교 방문.
10월 30일:	상항 평통 협의회 주최 제5회 청소년 웅변대회에서 강수정 학생 은상 수상

2005년

1월 22일	2004학년도 가을학기 종강, 2005학년도 봄학기 교사 연수
2월 5일	2005학년도 봄학기 개강
3월 19일	1주년 개교 기념식 거행
5월 7일	제12회 북가주 백일장 대회, 제5회 그림그리기 대회, 제4회 학부모 백일장 대회 참가 (오전 9시 - 오후 5시, Treasure Island, San Francisco, CA) 백일장 대회 수상자 금상: 강수정, 장려상: 이형진, 입상: 김병석, 이수지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 장려상: 김하나, 홍소연, 입상: 양희원, 셋모키, 방수진, 정하은, 송수빈
5월 21일	다솜한국학교 기금 모금 골프대회 개최
6월 4일	종강식을 겸한 제2회 다솜 골든벨 대회 개최
6월 11일	북가주 한국학교 협의회 제9기 교사 집중 연수회를 다솜한국학교가 위치한 리빙워드 교회(Milpitas, CA)에서 개최 (박은경 교사: 중급반 시범수업 강의)
7월 21-23일	재미한인학교 협의회(NAKS) 총회 및 교육학술대회에 교사들 참가 (최미영, 박은경, 박주희, 방은주, 임지민, 장혜경, 정은경)
8월 27일	교내 교사 연수회 실시 (오전 9시 - 오후 4시)
9월 10일	2005-2006학년도 가을 학기 개강
10월 8일	북가주 한국학교 협의회 제28차 교사 연수회에 참가 (장소: 샌프란시스코 생명의 강 교회)
10월 29일	제9회 북가주 한국학교 협의회 구연동화 대회에서 방수진 학생이 동상 수상 (장소: 세계선교 침례교회, Campbell, CA)
11월 12일	리빙워드 한인 침례교회 사회 복지부, 가정 사역부, 다솜 한국학교 공동으로 가정 세미나 주최 (장소: 리빙워드 한인 침례교회, Milpitas, CA)
12월 3일	북가주 한국학교 협의회 제11회 교사 사은의 밤에서 교사들 장기자랑 대회에서 다솜한국학교1위 수상
12월 10일	다솜 한국학교 조회/발표 및 세라핌 합창단 발표회

2006년

3월 18일	개교 2주년 기념식 및 발표회
4월 8일	북가주 한국학교 협의회 제29차 교사 및 학부모 연수회를 다솜한국학교가 위치한 리빙워드 한인침례교회 (Milpitas, CA)에서 개최
5월 13일	제13회 북가주 백일장 및 제6회 그림 그리기대회 참가(오전 9시- 오후 4시, Treasure Island, San Francisco) 백일장 대회 수상자 은상: 이형진, 장려상: 김병석, 입상: 김재영, 정신혜, 조원정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 입상: 송수빈, 원윤지, 유혜리, 이해나

6월 3일	2005-2006학년도 종강식 및 발표회
6월 10일	북가주 한국학교 협의회 제10기 교사 집중 연수회에 참가 (리치몬드 침례교회) (박미경 교사: 유아/유치반 시범수업 강의)
7월 20-22일	제24차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및 총회 참석 (Denver, Co) (참가 교사: 최미영, 박미경, 김영식, 임지민, 원은경, 백지현, 정은경, 박주희)
8월 26일	교내 교사 연수회 실시 (리빙워드 한인 침례교회)
9월 9일	2006-2007학년도 가을 학기 개강 (임지민 교무 임명)
10월 28일	제6회 청소년 평화통일 웅변대회 (오후 4-7시, 상향한국인연합감리교회, San Francisco, CA), 박지연 학생 장려상 수상
12월 9일	겨울방학 시작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협의회 총회 및 제12회 교사 사은의 밤 행사 참가 (총 9명) 총회에서 최미영 다솜한국학교장이 제13대 협의회 회장으로 인준됨 (임기: 2007/1/1 - 2008/12/31)

2007년

3월 17일	개교 3주년 기념식 및 발표회 (11:30-12:30pm)
3월 24일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협의회 제31차 교사 연수회를 다솜한국학교가 위치한 리빙워드 한인침례교회 (Milpitas, CA)에서 개최 (오후 4:00-7:00)
5월 12일	제14회 북가주 백일장 및 제7회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가 (오전 9시-오후 5시, Central Park, Fremont, CA) 백일장 대회 중등부 수상자 은상: 이수지, 장려상: 김현지, 홍소연, 강아론, 입상: 이형진, 이수정, 강지나 백일장 대회 초등부 수상자 동상: 김상민, 장려상: 신애경 그림그리기 대회 초등부 수상자 장려상: 유아림, 입상: 유희림, 원혁, 장선진, 홍서현
6월 9일	2006-2007학년도 종강식 및 발표회 (11:00-12:30pm)
6월 16일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협의회 제11기 교사 집중 연수회에 참가 (뉴비전 교회) (박은경 교사: SAT II 한국어반 시범수업 강의)
6월 23일	제4회 다솜 한국학교 기금모금 골프대회 (Summit Pointe Golf Course, Fremont, CA)
8월 2-4일	제25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참가(Detroit, MI) (참가 교사: 김영식, 박은경, 송향화, 원은경), 시범수업 강의 -박은경 교사,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감사장 - 김원구 (다솜 웹 및 북가주 협의회 웹 간사)
9월 8일	2007-2008 학년도 가을학기 개강, 반 이름을 변경: (병아리, 옥수수, 개나리, 봉숭아, 해바라기, 민들레, 진달래, 무궁화 / SATII) --> (고조선, 신라, 고구려, 백제, 발해, 고려, 조선, 대한민국 / SATII)으로 변경

10월 27일:	제10회 북가주 구연 동화 대회에 참가 (참가 학생: 최연정(조선반, 장려상), 이수현(발해반, 입상)
11월 10일:	Asian Art Museum (in S.F.) 견학 (11명의 학생 참가)
12월 1일:	제13회 북가주 교사 사은의 밤 행사에 참가 (교사 장기 자랑 2위)

2008년

3월 17일:	2월 2일: 봄학기 개강
3월 24일:	2월 16일: 교무에 원은경 선생님, 재무에 백지현 선생님 임명
5월 12일:	3월 8일: 개교 4주년 기념식 및 발표회 (11:30-12:30pm)
5월 10일:	제15회 북가주 백일장 및 제8회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가 (오전 9시-오후 5시, Central Park, Fremont, CA) 백일장 대회 중등부 수상자 은상: 홍소연, 장려상: 이수지, 이수정, 이형진, 김하영 그림그리기 대회 중등부 수상자 입상: 이하나 그림그리기 대회 초등부 수상자 장려상: 박지연, 원윤지, 입상: 이수현
6월 7일:	2007-2008학년도 종강식 및 발표회 (11:00-12:30pm)
6월 14일: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협의회 제12기 교사 집중 연수회에 참가 (세계선교침례교회, Campbell, CA)
7월 17-19일:	제26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참가 (Framingham, MA) (참가 교사: 최미영, 김원구, 송향화, 원은경), 지역협의회 발전 공로패 수상 : 최미영 북가주 협의회 회장, 15년 장기근속 교사 표창: 최미영 교장 (근속연수 16년)
9월 6일:	2008-2009 학년도 가을학기 개강, 신입교사 임명: 위미선, 조현주, 이혜원
12월 6일:	겨울 방학 시작,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협의회 총회 및 제14회 교사 사은의 밤 행사 참가 총회에서 최미영 다솜한국학교장이 제14대 협의회 회장으로 인준됨 (임기: 2009/1/1 - 2010/12/31)

2009년

2월 7일	2009년 봄학기 개강
3월 14일	3월 14일: 5주년 개교 기념식



다솜 소식

Volume 5, Number 3



다솜한국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008년 11월 5일 영어 교재 채택을 위한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 공청회에서 퇴출시키는 일을 주도하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우리 2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크게 깨달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킨더카튼부터 12학년까지 13년간 정규학교에서 배우는 과정 중 역사 및 일반 사회 과정에서 한국에 관한 내용은 한국 전쟁 등에 관한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학교 교육도 이제까지 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2세들이 자신의 뿌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꼭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많은 한국학교 선생님과 부모님들의 생각입니다.

한국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재 및 학습 지도안 등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재외동포들을 위한 한국 역사 문화 학습자료는 인쇄 매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고, 현지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향이 있어 동포 학생들의 관심과 동기를 유발시키지 못하여 효율적인 교육이 어렵고 이로 인하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의회에서는 역사 문화 연구 위원회를 조직하고 한국학교 32-36주 과정의 학습지도안 및 평가서를 첨부하여 동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고 자원봉사 교사들이 손쉽게 가르칠 수 있는 교과 과정을 2년에 걸쳐 개발하기로 하고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솜에서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위미선 선생님과 정은경 선생님이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솜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잘 배워서 재미한인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솜한국학교
 Dasom Korean School
 1494 California Circle
 Milpitas, CA 95035

 Phone: 408-934-3600
 Fax: 408-934-1092
 info@dasomks.org

다솜 한국학교 5주년 개교기념일을 축하합니다.

